

## ■ (농정 이슈) 2022.3.13. “파이낸셜뉴스” 보도

### ○ 천연가스 부족... 유럽, 농업 비료 생산공장 가동 45% 급감

- 비료생산 타격...식량 위기 고조
- 러産 가스 부족→가격 폭등 악순환
- 비료가격 연초대비 4배 치솟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농업용 비료 생산까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전세계 식량위기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로 주요 곡물 수출국인데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 감소로 비료 생산까지 타격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비료업체인 야라인터내셔널의 스페인 토레 홀스터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 시간) CNN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비료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스터 CEO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차질로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이를 원료로 한 암모니아, 요소 비료 생산설비 가동률이 유럽 공장에서 45%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농작물에 핵심적인 이 2가지 비료 생산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전세계 식량 공급 역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홀스터 CEO는 "과연 식량 위기가 올 것이냐가 아니라 위기가 얼마나 심각할지가 관건"이라고 경고했다.

### ■ 비료가격 사상 최고

요소비료 같은 질소계 비료를 만들려면 천연가스가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경제제재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비료업체들이 이를 꺼린다.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도 폭등해 비료 생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홀스터 CEO는 생산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 대량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유럽 생산시설이 언제 완전가동에 들어갈 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그는 비판했다.

비료 가격은 치솟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CRU그룹의 비료부문 책임자인 크리스 로슨에 따르면 요소비료 값은 현재 t당 1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연초에 비해 4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마저도 자국에 비료공장이 없는 나라들은 구경도 하기 어렵다. 대량 경작에 필수적인 비료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세계 식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송경재 기자>

## ■ (농정 이슈) 2022.3.11. "연합뉴스" 보도

### ○ 러, 반출금지 200여 종 상품목록 발표..."기술·통신 장비 등"(종합)

- 한국 포함 비우호국엔 목재 제품 판매도 올해 말까지 금지
- 비료·곡물·설탕·자동차 등도 수출 제한

러시아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외 반출이 금지되는 200여 종 상품과 장비 목록을 확정해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보도문에서 "(반출 금지) 목록에 기술·통신·의료 장비, 운송 수단, 농기계, 전자기기 등을 포함해 200여 가지 상품이 포함됐다"면서 "여기엔 열차 차량과 기관차, 컨테이너, 터빈, 철 및 석재 가공용 선반, 모니터, 프로젝터 등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상품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들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반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된다"면서 러시아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이날 일부 상품 반출 금지 조치와는 별도로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목재 제품 판매도 올해 말까지 금지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포함했다.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외 시장으로 비료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발부는 EAEU 국가들로의 밀·호밀·보리·옥수수 등의 곡물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설탕의 제3국 수출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정부령을 통해 러시아로 반입된 자동차와 다른 운송수단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객 및 화물 운송용 선박과 요트, 항공기, 무인기 등도 수출 금지 품목에 넣었다.

< 모스크바 유철종 특파원 >